

# 노동자의 몸으로부터 대안을 만드는 현장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 정민주 회원을 만나다

조건희 상임활동가

---

다섯 번째 회원 이어말하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인종과 젠더라는 프로젝트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민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인종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젠더화된 권력관계와 결합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페미니스트 연구 활동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와 젠더를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 왜 사람들은 SNS 공간에서 활발하게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활동으로는 결집하지 않는지에 대한 글을 보게 됐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단정하지? 아무래도 그 글에 대한 반발심이 컸나

봐요.

‘안녕들하십니까’(2013년 12월부터 여러 대학에 붙었던 시대 비판 대자보)가 저의 수능 직후에 있었고, 밀양 투쟁 연대 등도 하면서 연을 계속 맺어오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내 청소 노동자들과 연대 사업도 많이 했는데, 청소 노동자들에게서는 가사 노동이나 투쟁 방식 등도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상호 돌봄을 접하고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학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활동하면서 운동 단체 내부의 성차별을 많이 목격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때 불꽃페미액션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방송국의 유튜브 채널에 취직해서 잠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튜브를 포함한 플랫폼의 유입 경로, 활용 방식 등이 완전히 젠

더화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활동을 더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여성학을 전공했고, 플랫폼과 관련한 논문을 썼죠.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 이야기할 때 산재를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노동안전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주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리셀 참가였어요. 참가 이후에 사측이 출신지를 기반으로 희생자들에게 차등 보상하겠다는 기사를 보면서 몹시 화가 났죠. 이게 이미 관행이었다 하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 아리셀 참사는 기후 위기 대안으로 전기차나 리튬 배터리가 주목받지만, 정작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은폐된 채 아래로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관련 연구는 서구와 남반구만 주로 다루더라고요. 동아시아 국가에 제조국들이 많은데도요. 그렇게 분업화되어 있지만 비어 있는 인종과 젠더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구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독자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노보연과 본격적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한노보연에서 했던 여성 노동자 화장실 연구 후속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한 지도 교수님과 동행하면서 연구소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한노보연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저에게 여러 번 주지시켰습니다. (웃음) 독자 연구 공모도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안내해 주셨어요. 플랫폼이 얼핏 성별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 라이더들이 도로에서나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차별적인 구조에 노출되는지 보고, 이를 통해 노동안전보건을 젠더화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정되었고, 연구 과정에서 여러 명의 여성 라이더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독자 연구가 연구 수행에서 그치지 않고 후속 토론회나 활동으로 이어진 점도 좋았어요. 더 깊게 연루되고 싶단 생각을 했죠.

### 자신을 연구 활동가로 위치 짓고 계시는데, 본인만의 이유나 기준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여성학 자체가 전인격적인 점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연구 방법론 및 주제의 방향성이 뚜렷해야 하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 걸 넘어 지식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과 관점이 있어야 하고요. 또 현장 연대를 중요한 지식 생산의 방식으로 여기며 실천해야 하죠.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평가받는 학자들의 배움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을 많이 보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이구나, 매번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 하나는 ‘현장에서 떨어지지 말자’입니다. 연구자들은 사람과 의제를 조직해 왔던 노동 사회에 빚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학술적으로 잘 번역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올해 한노보연에서 하는 대구경북 가전 방문 노동자



▲ 2026.5.1. 노동절 집회에 한노보연과 함께 한 정민주 회원. 사진 : 한노보연

연구도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 보고서가 투쟁의 근거로 활용되길 바라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운영집행위원회, 위험성평가팀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독자 연구를 마무리할 즈음 한노보연 젠더센터에서 위험성평가팀이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접했어요. 위험성평가팀은 의제 특성상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세우기 조금 더 수월했던 거 같아요. 정지윤 팀장 포함해 팀원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팀에서 젠더 관점의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토론을 진행했고, 교안을 개발했어요.

이후 활동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민주노동대구경북본부에서 연구 의뢰가 들어왔어요. 대구경북 지역에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연구입니다.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이고, 노동의 특성이 가사노동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어 온 노동을 하는 이들이기도 하죠. 노조에서는 처음에 집단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전 면접을 가 보니 이분들이 마주한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 노동, 성폭력 위협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노조 간부들도 놀랐고, 팀에서도 근골 질환 외에도 중년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고질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연구 목표를 수정, 확정했어요.

설문과 면접, 현장조사를 함께하면서 이분들의 노동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노동자 다수는 10년 이상 근속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실천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일종의 돌봄 역할도 수행하고 계셨어

요. 노년층 고객들한테는 어디 아프지 않은지, 자식들과 관계는 좋은지 등 물어보고 필요하면 병원에 동행하기도 했어요. 설치 기사한테 제기하고 싶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대신 전달한다거나, 기사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서비스를 구독, 유지하기 위한 그림자 노동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회사는 제품 점검을 넘어 영업까지 강요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이러한 노동을 자기 삶 속에서 의미화하는 방식이 존경스러웠어요. 체계화된 저임금이나 평가 절하에도 불구하고 왜 이 노동을 지속하는지, 노조와 회사에 무엇을 바라는지 등을 잘 정리하고 싶어요. 억압받는 노동자를 넘어서, 노동을 유지하는 과정보다 잘 드러내고, 동시에 이분들이 일터의 위험을 드러내고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도 부각하고 싶어요.

올해부터 한노보연 젠더센터 운영집행위원회도 함께하고 있어요. 9월에 미국으로 가서 잘할 수 있을지 고민되긴 해요. 그래도 젠더센터 운영집행위 회의를 통해 한노보연의 내부 상황도 더 잘 알게 되었고, 전체 운동에서의 한노보연의 위치와 연대 방식에 대해 공유받으면서 저도 고민이나 시야가 넓어지는 거 같아요.

### 현재 노동안전보건과 젠더 관련하여 더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다면?

대구경북 가전 방문 노동자 현장 조사를 하면서 만났던 분의 손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일 때문에 방아쇠 증후군이 생겨



▲ 2024년 말부터 이어져 온 시민행동 집회에서 윤석열(진) 대통령 구속을 염원하며 힘차게 가두행진을 펼쳤던 어느 날 한 장면. 사진: 정민주

서, 매번 손이 아프고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자기 손을 약간 부끄러워하시기도 했는데요, 저희 연구진에서는 그 손을 피해를 겪은 신체 기관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많은 노동의 경험을 담았던 증거이자 누적된 결과물이잖아요. 나아가 제품 디자인과 노동 형태를 재구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요새 저의 고민 중 하나는 아픈 몸 또는 장애를 지닌 몸이 어떻게 지식 생산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예요. 아프고 치료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체계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고 대안적인 사회를 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상은 아직은 없지만, 그런 태도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알터**